



▲ 6.2 청년노동자 故김재순 광주시민추모제 @photo by KSH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A**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64 다담식자재마트 3층 대안공간 공공연 C-01호

**T** 062-522-0518

**M** gjpssp2020@gmail.com

**H** pssp.org/gj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회원소식지  
2020년 상반기호

발행일 2020.09.09. 수요일  
만든이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여는 글**  
**상반기 활동보고**

**특집/코로나19와 광주**

- 코로나19와 경제위기: 통계로 보는 광주경제 현황 ... 4
-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광주 자동차산업 현황 ... 8
- 코로나 19와 보건의료: 인력과 병상으로 살펴 본 광주의 공공의료... 13

**지역연대/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에 연대하며**

- [기고]연대의 힘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전남대 학생행진 ... 16
- [기고]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전남대 학생행진 ... 18

**정세분석/노사정합의안 부결에 부쳐**

- 민주노총의 제 역할을 찾지 못하면 노동운동 미래도 없다 ... 20

**회원인터뷰**

- 신입회원 허지선 동지를 소개합니다 ... 23

**독자참여**

- 가로세로 퍼즐 ... 27

# 여는 글

## 코로나19 위기, 사회운동의 개점휴업을 깨자

사상 초유의 팬데믹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차원의 경제, 정치, 사회적 충격이 지속하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져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연일 변덕스럽다.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위기는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원점이 침체의 연장이라는 점은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한다. 한국, 그리고 광주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에도 여전히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0년 상반기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분명한 해법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을 목격하는 시기였다.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합의 국면에서 드러난 총연맹의 총체적인 무능과 공동의 이념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극단으로 분열하는 노동조합의 현실은 노동자운동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어느 때보다도 사회운동이 빛을 발해야 할 위기 시기, 포퓰리즘적 위기 대응으로 문재인 정권이 빛을 발하는 동안 사회운동은 오히려 개점 휴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호를 마지막으로 개점 휴업에 들어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소식지가 2020년 상반기 호로 돌아왔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코로나19와 광주경제 및 보건의료체계 현황, 신입회원 인터뷰, 지역 연대 소식을 주요하게 담았다. 4년 만의 소식지라는 점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발간하지만, 이제 막 개점 휴업을 끝낸 처지에서 더 많은 지역 소식과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아쉬운 마음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와 이름들이 등장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가겠다. 아무쪼록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소식지도 야심 차게 돌아온 만큼, 사회운동 또한 코로나19 그리고 포스트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역할과 운동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사무처장 서단비

---

## 상반기 활동보고

---

### 2020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총회

# 4/12



2020년 광주전남지부 총회를 시작으로, 힘찬 활동을 해나갈 것을 함께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운남동에서 도산동으로, 사무실 이사

# 5/8



광주전남지부가 운남동 사무실을 떠나 도산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사는 회원 및 후원회원 동지들과 함께했습니다.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학교 2020 기획포럼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생활을 위한 길찾기>

6/19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 정말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팬데믹과 세계경제의 재편 혹은 붕괴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처 신입 상근활동가 출근

5/11



지부 사무처에 새로운 상근활동가가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동지와 힘찬 활동 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

집배노조 광주우체국 지부 현판식

6/30



집배노조 광주우체국 지부가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지부 사무처와 회원들이 연대했습니다.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규탄 집회

5/28

지난 5월 28일 해남공단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청년노동자 김재순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또 다른 산재를 막고,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기위해 연대했습니다.

(주) 조선우드 사업주 구속촉구 결의대회

7/1

(주) 조선우드 박상중 대표 사죄촉구 선전전

7/9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광주시민추모제

5/29



고 김재순 노동자 장례 및 <추모의 밤>

7/29

사드장비 반입규탄, 성주 연대방문

6/10



5월 29일, 소성리 기지에 사드장비가 추가 반입되었습니다. 장비 추가 반입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진압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지로 가는 육로를 지키는 돌아가며 농성을 지켰고, 광주전남지부도 함께했습니다.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와 <추모의 밤>이 있었습니다. 김재순 노동자를 기억하고, 대책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 김재순 노동자 영결식

7/30

페미니즘 소모임

6/17~



최근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싶은 회원들이 뭉쳤습니다. 새로운 참여자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연락주세요!

경제경영 분석세미나 공공경제편~

7/30~



코로나로 잠시 쉬어가던 경제경영 분석세미나를 재개했습니다. 3팀동안 이준구의 <제정학>을 교재로, 공공경제를 다룹니다.

# 코로나19와 경제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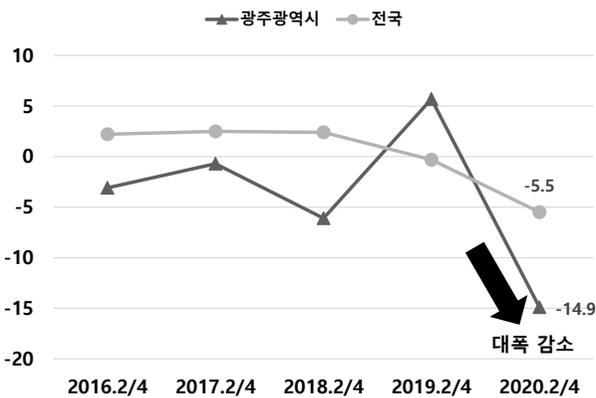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광주경제 현황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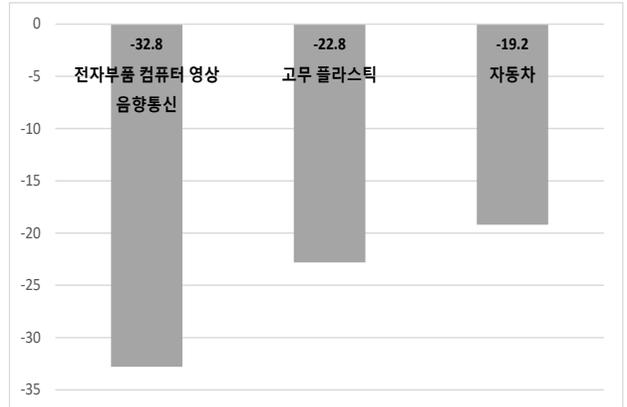
### 생산·수출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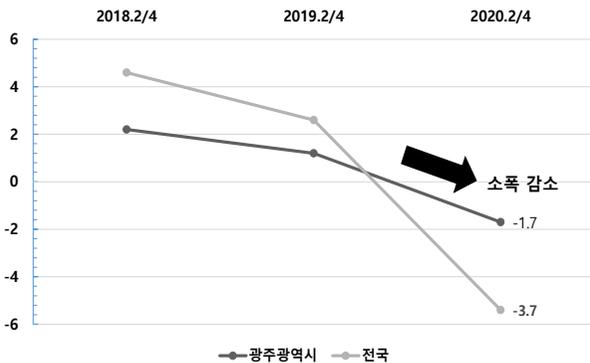
광공업생산지수<sup>1)</sup>  
(전년동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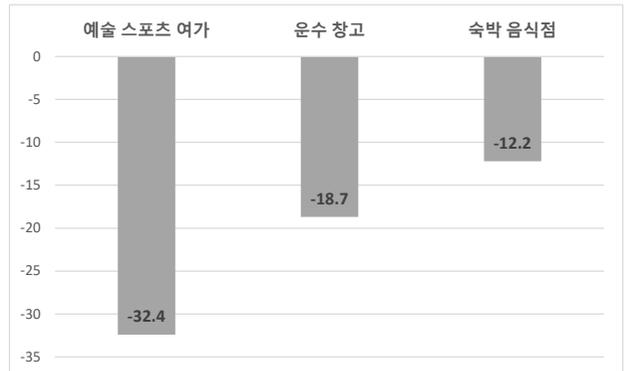
2020년 2/4분기 광주광역시 광공업생산지수 감소업종  
(전년동분기대비, %)



서비스업생산지수<sup>2)</sup>  
(전년동분기대비, %)



2020년 2/4 분기 광주지역 서비스업생산지수 감소 업종  
(전년동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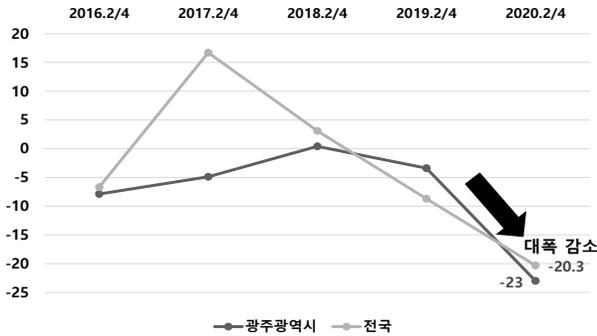


1) 광공업생산지수는 일정기간 중 이루어지는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의 하나로서, 기준년도(2015년=100)의 생산수준에 비해 현재의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동행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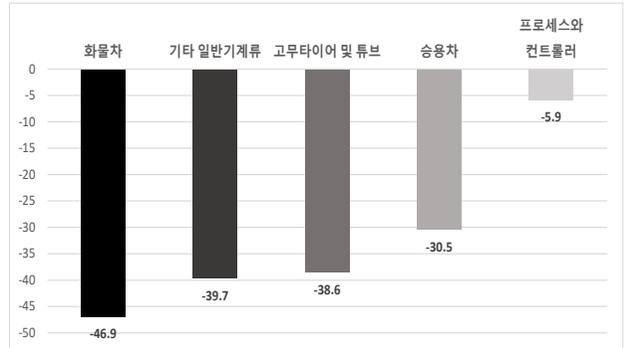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2020년 2/4분기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대폭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32.8%, 고무·플라스틱 -22.8%, 자동차 -19.22% 순으로 높게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했고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32.4%, 운수·창고 -18.7%, 숙박·음식점 -12.2% 순으로 높게 감소했다.

수출(전년동분기대비, %)



2020년 2/4분기 광주지역 수출 감소품목 (전년동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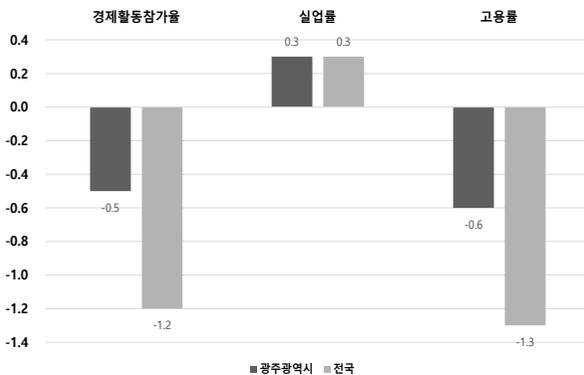


2020년 2/4분기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동분기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화물차 -46.9%, 기타 일반기계류 -39.7%, 고무타이어 및 튜브 -38.6%, 승용차 -30.5%,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5.9% 순으로 높게 감소했다.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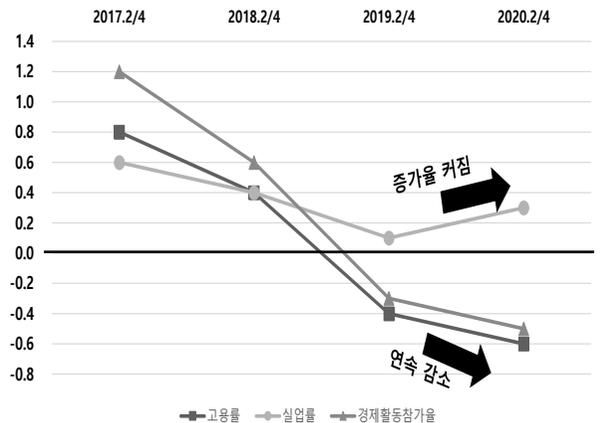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2/4분기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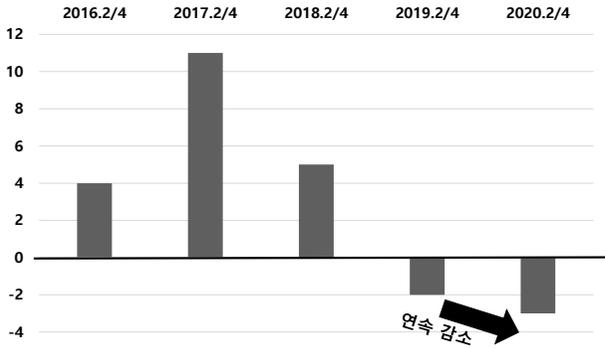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광주광역시	61.2	4.3	58.6
전년동분기대비 증감	-0.5	0.3	-0.6
전국	62.7	4.4	60
전년동분기 대비 증감	-1.2	0.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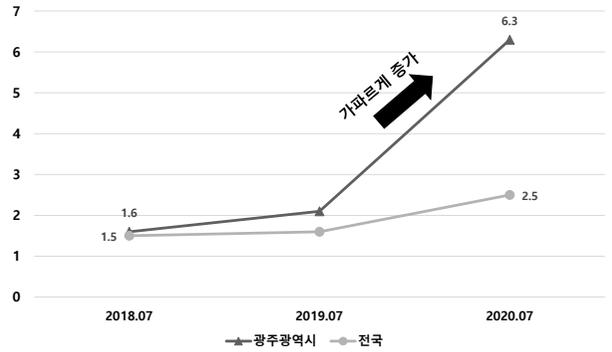
광주지역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전년동분기대비, %)



### 광주지역 취업자 증가 (전년동분기대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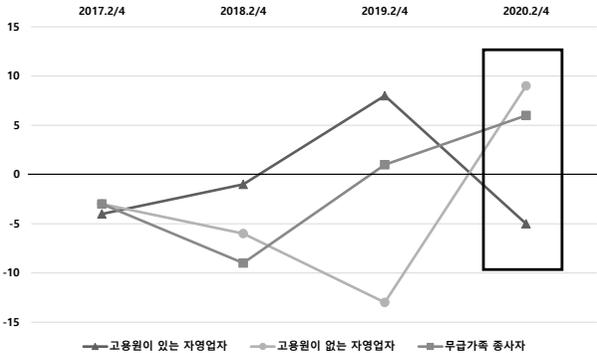


### 일시휴직자 (취업자수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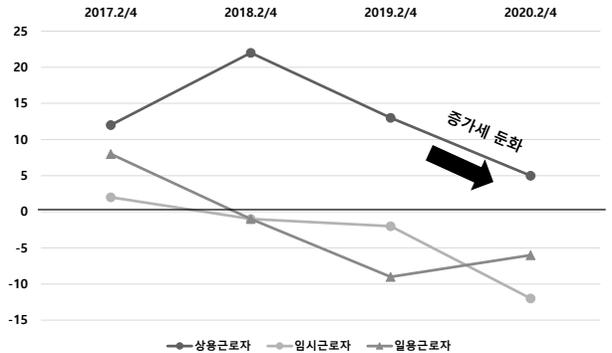


2020년 2/4분기 광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은 각각 61.2%, 4.3%, 58.6%로 전국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폭 악화하였다. 고용지표 자체는 전국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향후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지역만 놓고 보았을 때 2019년 2/4분기에 이어 취업자 수·경제활동 참가율·고용율이 연속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의 시기적 특성상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되어 '고용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일시휴직자<sup>3)</sup>가 전국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광주광역시 자영업자 구성 (전년동분기대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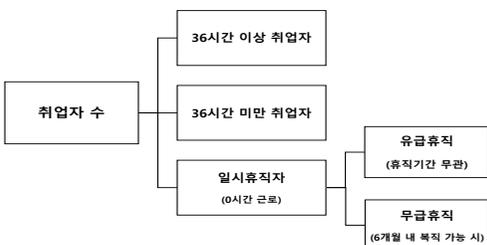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임금근로자 구성 (전년동분기대비, 천명)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고용원을 줄이고 본인 및 가족의 무급노동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늘어남으로써 자영업의 질이 악화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에서의 감소를 상쇄하던 기존의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둔화하여 전체 임금근로자 수 자체가 감소했다.

### 3)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한국은행, 2020)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 구분



\*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 경과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상반기 한국경제는 연일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좋지 않았던 경기가 모든 면에서 더욱 안 좋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경제성장률을 2.3%라고 전망했으나 -0.2%에 이어 -1.2%까지 두 번에 걸쳐 하향 조정했다. 한 자릿수 성장률에도 올상이었던 한국경제는 이제 마이너스 뒤 숫자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처지가 되었다.

광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대폭 악화하였고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악화하였다. 고용지표는 소폭 악화하여 외관상으로는 생산과 수출에서의 악화가 고용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향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의 한계로 인해 현재 지역단위의 고용위기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전국적인 경향을 보았을 때 코로나19 시기의 고용위기는 노동조합이 없고 지불능력도 없는 중소기업과 민간부문에 집중되고 있다.<sup>4)</sup>광주지역 또한 노동조합 차원의 의식적인 위기인식과 위기시기에 맞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미리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 참고문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서비스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2020
-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2020.1호~2020.7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20
- 2020년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1~7월), 호남지방통계청, 2020
- 2020년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1~7월), 호남지방통계청, 2020
-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20
- 2020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통계청, 2020
- 2020년 2분기 호남지역경제동향, 호남지방통계청, 2020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광주광역시 일자리·민생안정 지원정책, 광주광역시, 2020
-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는 어디서 얼마나?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2020

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격차와 취약계층의 생존권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1차 파동의 피해는 자영업과 영세기업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고용 불안정 계층에 집중됐다.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와 관청은 부동산자산을 소유한 계층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거나, 심지어 이전보다 나아지기도 했다. 코로나19 2차 파동은 1차 파동의 피해를 본 계층을 다시 타격할 것이다. 이미 '그리기' 상태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 -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는 어디서 얼마나?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2020.8.24

# 코로나19와 경제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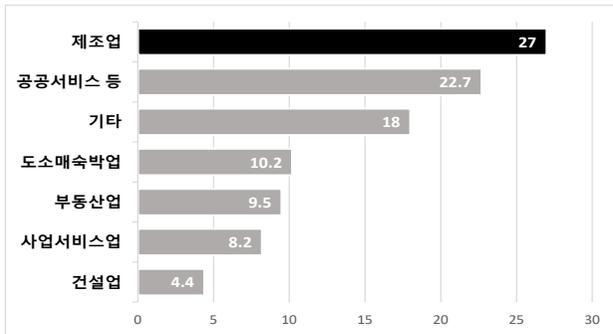
## :광주 자동차산업 현황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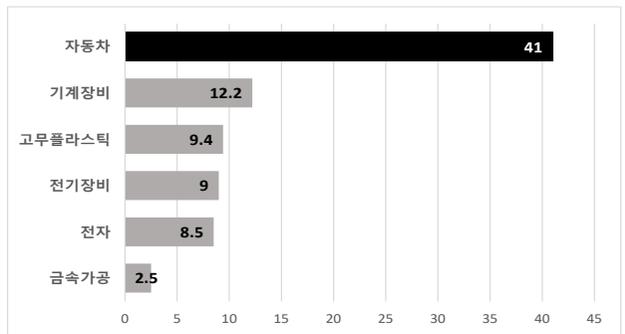
### 광주 지역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의 위상

\*자료: 통계청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 및 시사점(원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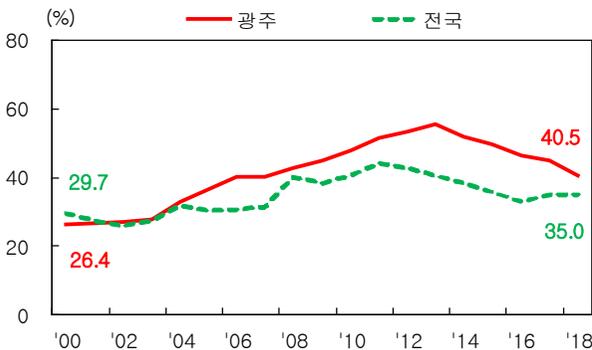
광주 지역내총생산 산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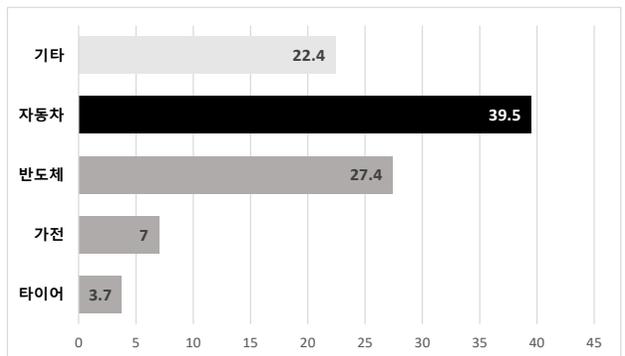
광주지역 제조업 총부가가치 5대 품목 비중(%)



광주 지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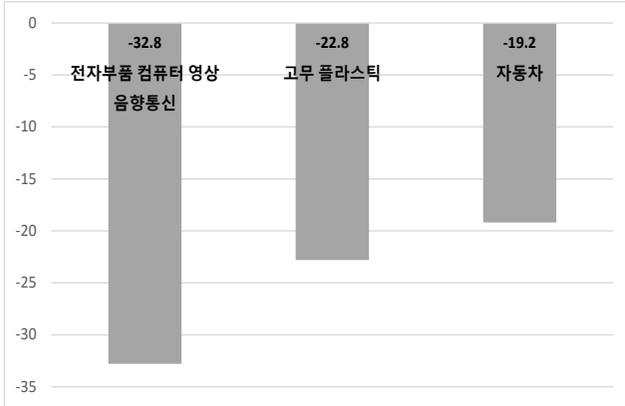
2019년 광주지역 품목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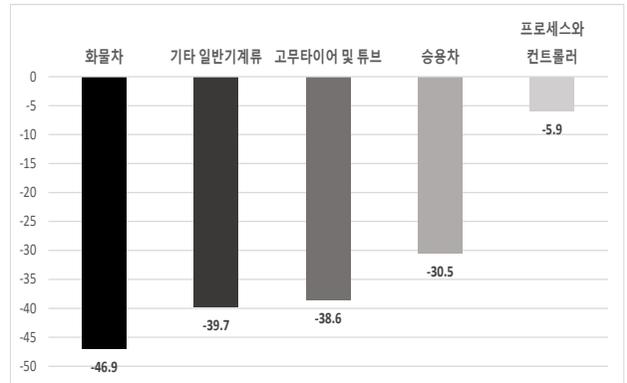
광주경제는 제조업,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광주 지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은 27% 이며 자동차는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지역내총생산에서 수출 비중은 40.5%로 전국평균보다 높고 자동차는 수출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생산·수출 감소와 고용충격

2020년 2/4분기 광주광역시 광공업생산지수 감소업종  
(전년동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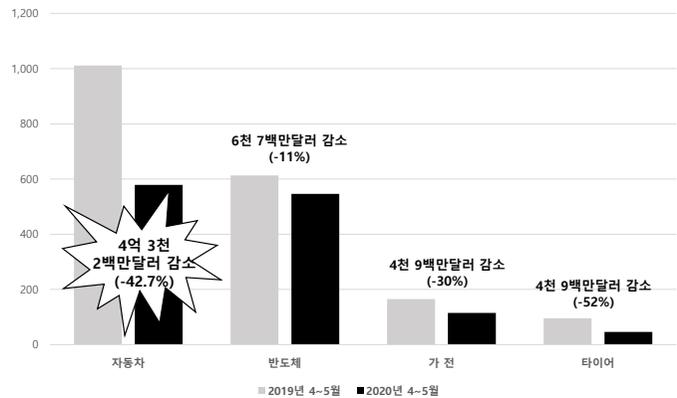
2020년 2/4분기 광주지역 수출액 감소품목  
(전년동분기대비, %)



2020년 상반기 광주는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대폭 감소했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 전후방 산업에서의 부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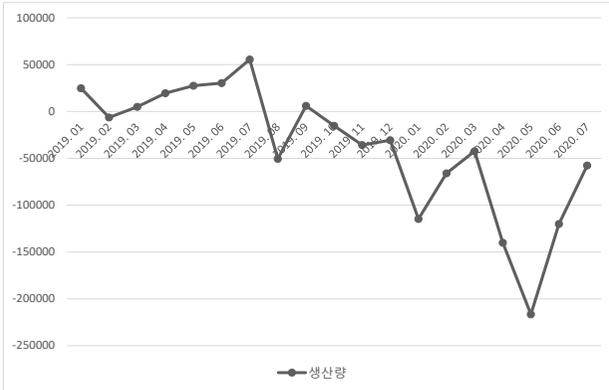
이에 따라 광주지역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동향이 발생했다. 광주 기아차 공장은 2월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국내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군수 라인을 제외한 모든 라인이 이틀 동안 일시 중지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물량 및 버스업계 주문 감소로 수출 비중이 큰 스포티지와 쏘울의 생산라인을 4.27~5.8일, 5.25~29일, 6.1~5일, 6.25~26일, 6.29~30일 각각 중단하였으며, 봉고트럭의 생산라인도 6.4~5일, 6.8~9일, 7.8~10일 중단하였다. 1차 부품사(모비스, 위아)와 금호타이어도 징검다리 휴업을 지속했다.

2020년 4~5월 광주지역 주요 품목별 수출액(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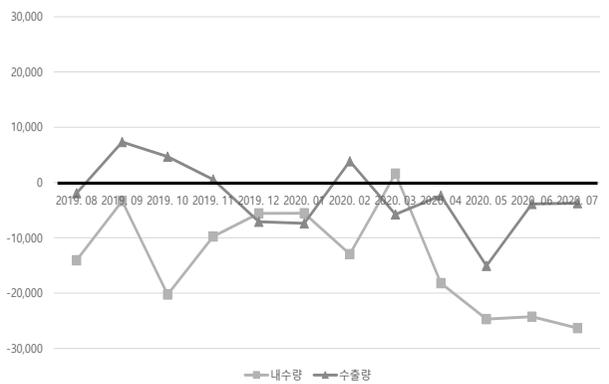


# 감소폭 완화 추세이나 낙관하기 어려워

자동차 생산량(전국)  
(전년동월대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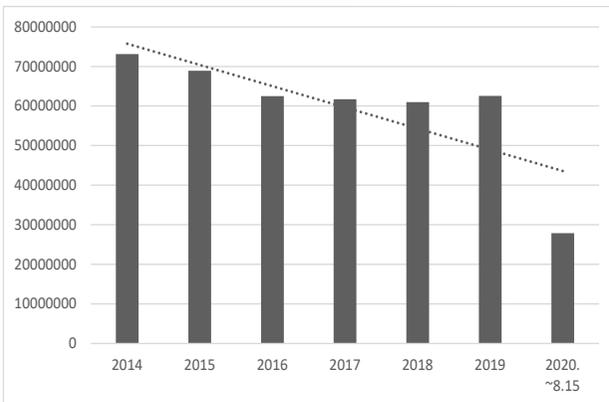
자동차 내수, 수출량(전국)  
(전년동월대비, 톤)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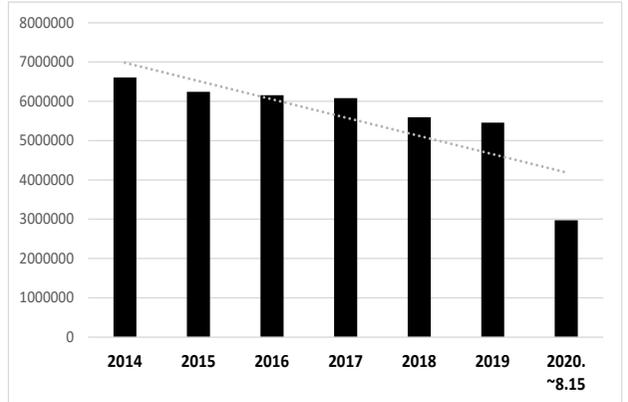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하기 시작한 2019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감소한 생산량, 수출량은 최근들어 감소폭이 완화하여 휴업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n차 확산에 의한 재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불리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자동차 수출액  
(천불, 전국)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홈페이지 8/8/01~8/08

자동차 수출액  
(기간: 2015~2020, 천불,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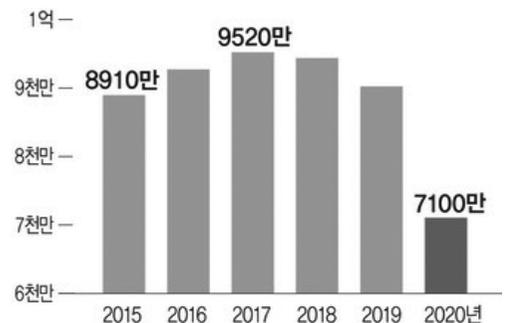


설사 감소폭이 완전히 완화하여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이미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몇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 이후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0년은 1955년 이후 65년만에 자동차산업이 3년 연속 역성장을 맞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1)</sup>. 한국 자동차 수출 또한 2015년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 「코로나 충격과 자동차산업 전망」, 금속연구원, 황현일

##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단위: 대) 자료: 엠엘시(LMC) 오토모티브 ※2020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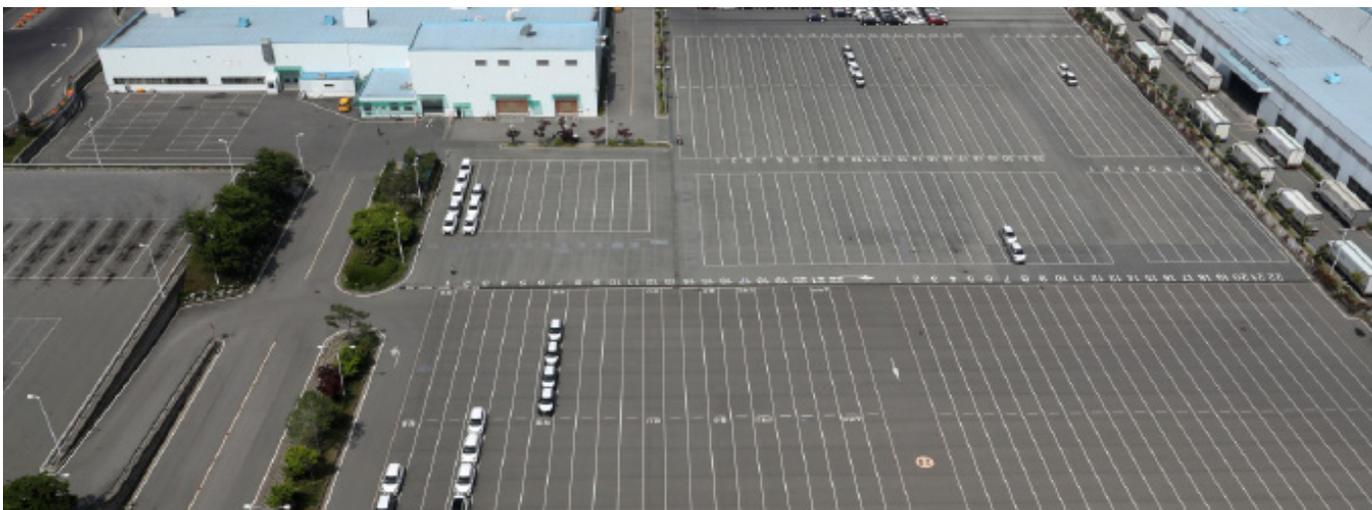
\*도표: 한겨레 자동차 업계 '선택과 집중' 생존전략... '세계시장 재편 가속' (2020.6.20, 원자료: LMC 오토모티브)

요컨대, 한국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거니와,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침체의 연속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휴업사태의 반복과 산업별 구조조정 염두에 두어야

광주 민간부문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의 휴업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기아차 광주공장 및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인한 전후방 산업에서의 휴업 또한 그러했다. 생산 및 수출량 감소폭 완화로 휴업사태는 일단락 되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나 반복적인 확산으로 인한 재침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다. 더하여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산업전망이 밝지 않다. 휴업사태의 일단락에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같은 사태가 반복되거나 더 큰 사태, 즉 산업이 통째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산업별 구조조정까지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한국 완성차업계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이 있고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지만, 노동조합이 없고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사의 줄폐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장의 충격을 벗어나는 것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대책과 산업별 구조조정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산업별 구조조정은 조직된 현장에서의 임금과 고용을 방어하는 것으로 막을 수 없으며, 일단 시작되면 기업별 정리해고 반대투쟁만으로 국면을 극복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해고반대 투쟁의 방편뿐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의 경제·산업분석과 고용 대책을 통해 산업별 구조조정 국면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아차 광주2공장 일시휴업 당시 공장 앞 전경 @사진: 뉴스줌

### ※ 참고문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공업제조업동향조사, 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코로나 충격과 자동차산업 전망, 황현일, 금속연구원, 2020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보고서, 광주광역시, 2019  
복합위기 환경 하에서의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개편 방향, KIET, 2020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지역 수출 동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20  
2020년(상반기, 2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 관세청, 2020  
코로나19의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김준규, KIET, 2020  
2020년 2분기 호남지역경제동향, 호남지방통계청, 2020

# 코로나 19와 보건의료

## :인력과 병상으로 살펴본 광주의 공공의료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지난 6월말 비교적 잠잠했던 광주광역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대유행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광주에서만 170명이 넘는 확진자를 냈고, 방역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과정을 거치며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역량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문제는 두 가지로 첫째, 병상의 부족, 둘째, 의료 인력의 부족이다.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가? 앞으로도 닥칠 전염병 유행에 대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점에서 나아갈 방향까지 살펴보자.

### 첫 번째, 병상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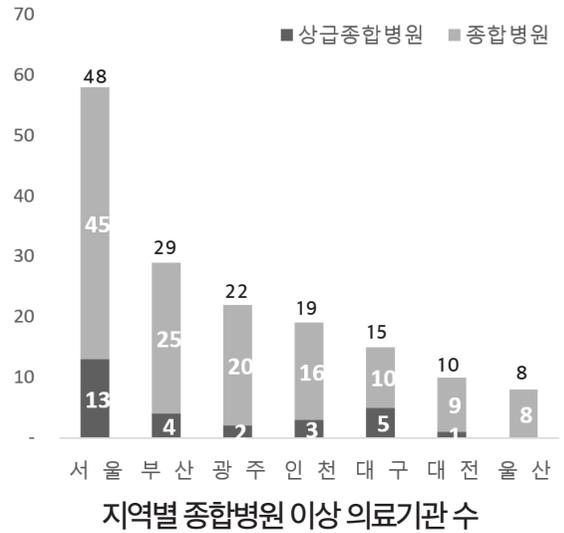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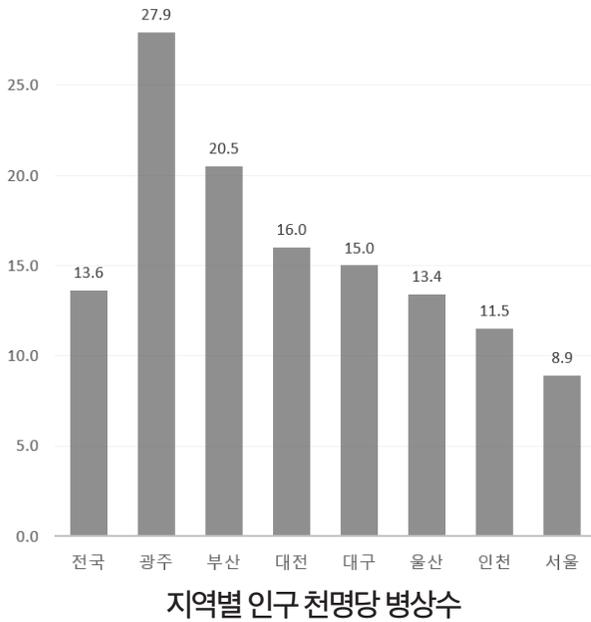
병상수급문제는 광주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6월 27일부터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7월 2일,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4개<sup>1)</sup>까지 떨어졌다. 중환자병

상 수급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광주 시내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받을 여력은 없다"며, 호남권역과 천안, 대구 등으로 확진자를 분산 수용했다. 잠시나마 중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다행히 7월 광주코로나 유행은 잠시 진정세를 보이며 분산수용으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할 경우 사용하기 어려운 임시방편이다.

사실 광주의 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었다. 광주는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27.9개로 광역 시도 중 가장 많다.<sup>2)</sup> 지역별 입원병상 현황을 보면, 광주에는 3만 8천 일반 입원실 병상이 있다. 이는 광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대구의 3만 3천 병상, 광주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의 2만 2천 병상보다 훨씬 더 많다. 기관의 수로 비교를 해도 광주의 종합병원급 이상의

1. 광주에 확보된 국가격리병상은 전남대병원 7개, 조선대병원 10개로 총 17개였으며, 이 밖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을전남대병원에 45개 등 총 64개였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광주 코로나 확진자는 59명이었다.



료기관 수는 22개로, 대구의 15개나 대전의 10개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공공/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를 비교한다면 광주는 다른 광역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대처할 공공병원이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광주의 공공병원은 국립전남대학교 병원이 유일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 환자를 수용한 곳은 전남대병원·빛고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sup>3)</sup>뿐이었다.

광주의료원을 설립해 지방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광주와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재난·응급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 의료노조 등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구한다며

광주의료원 설립 지지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병상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병원이 기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병상 부족 사태는 주변 지자체의 지원으로 해결되었는데, 병상을 지원한 호남권 병원 역시 모두 공공병원이었다.<sup>4)</sup>

다만 광주의료원 건립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광주지역에 병상은 충분하다. 문제는 민간병원의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병원, 특히 소규모 민간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이 없을 때는 의료비 증가를 부추긴다. 따라서 광주의료원은 기존 영리 추구 위주의 민간병원 병상을 '대체'한다는 목표와 정선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고, 유의미한 공공병원으로 역할 할 수 있다. 한편, 지금 당장 코로나19

2. 표 참조.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2018년, 통계청  
3. 조선대학교 병원은 사립병원이나, 민립 대학이자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을 고려.

4. 당시 일반병상은 강진의료원(14개), 순천의료원(6), 전북대병원(10), 원광대병원(1), 군산의료원(10)을 통해서, 중환자 병상은 원광대(2)와 목포중앙병원(2)을 통해 수급되었다.

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의 공적 역할을 강제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민간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이나 첨단종합병원 등의 역할을 미리 협의하고 다음 유행에 대비하는 게 광주광역시야 해야 할 진짜 대책이다.



“사실 거의 우리가 몸으로 막았어요. ... (K-방역을) 거뜰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이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간호사 유연화)”, 의료연대본부, 코로나inside 中

## 두 번째, 의료인력 수급

보강해야 할 또 다른 축은 의료인력이다. 코로나 격리 병상 간호사는 방호복 착용으로 평상시보다 업무강도가 몹시 높다. 대구 코로나 대유행 당시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높았다. 대구의 코로나19 간호사들은 한 달에 오프가 4일(평균 8-11일)밖에 되지 않는 등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고, 수면 부족 등 건강 문제는 물론, 감염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구 사례를 고려해 △코로나19 격리 병상 간호사 2시간마다 교대, 2인1조 업무 △중환자실 간호사 1

명이 코로나19 중환자 1명 담당 △격리병동 코로나19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 배치 등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간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코로나 치명률과 직결되는 중환자실 간호인력의 준비가 미리부터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교육받지 않은 간호인력을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결과와 의료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Gomersall et al., 2006) 실제 대구 코로나 사태 당시, 중환자실 인력부족으로 병동간호사를 1-2시간 교육 후 중환자실 투입되면서, 간호사들이 심각한 불안과 위협감을 느낀 사례도 존재한다. 간호인력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해 갑자기 공급할 수 없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코로나에 대비해 중환자실 간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기본 1년 과정이다.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계획, 특히 교육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코로나19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숫자와 높은 숙련도의 간호인력을 요구하는 데 반해, 광주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광주에서 코로나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공공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빛고을전남대학교 병원<sup>5)</sup>, 또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적역할이 요구되는 조선대학교병원은 모두 간호등급 2등급이다. 이는 간호사 한 명이 최소 9.6, 최대 12명의 환자를 본다라는 의미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

5. 광주보훈병원도 공공병원이나, 수요자 층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응에서 제외한다. 보훈병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환자들을 받지 않을 경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히 높아지므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광주보훈병원의 간호등급은 2등급이다.

6. 간호등급 2등급(상급종합)은 간호사 1인당 2개 이상 ~ 2.5개 미만의 병상을 맡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병상수를 전체 간

호사 수로 나눈 값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1인당 환자수는 이보다 크다.

간호등급상 환자 수에서 실제 간호사 수를 역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8시간씩 3교대를 하므로, 24시간 동안 필요한 간호사 수는 세 배다. 그런데 딱 세 배만 있다면 간호사들은 영원히 쉴 수 없다. 휴무와 휴가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최소 1.6배다. 따라서 간호등급 상 병상 당 간호사수에 4.8(=3\*1.6)을 곱해야한다.

준이다.<sup>6)</sup> 중환자실 인력 역시 열악한데, 광주의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 조선대 병원이 각각 2.8명, 3.5명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과다하고, 코로나19시기에는 더욱 그렇다.<sup>7)</sup> 이번 광주코로나 유행에서는 중앙대책본부의 의료인 파견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앙 인력과 견, 권역별 분담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과 견고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긴급한 의료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7월의 위기는 넘겼지만, 8~9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칭찬하고 광주의료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광주광역시는 지금 당장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한정된 인력과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지 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역량을 강화해 닥쳐올 감염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7. 학계에서는 이상적인 중환자실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맡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9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는 방호복을 입어 업무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간호사 1명은 환자 1명만 맡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참고자료  
 사회진보연대, [공개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보건의료: 인력과 의약품 중심으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K-방역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의료계의 진짜 현실 [inside 코로나19], [https://youtu.be/2vFTk\\_FbX4c](https://youtu.be/2vFTk_FbX4c)  
 김지영. (2017). 메르스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경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185-196.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185> (2차 인용)  
 대한중환자의학회 (2020). 대한중환자의학회 뉴스레터 26호 (2차 인용)  
 Gomersall, C. D., Tai, D. Y. H., Loo, S., Derrick, J. L., Goh, M. S., Buckley, T. A., ... Joynt, G. M. (2006). Expanding ICU facilities in an epidemic: Recommendations based on experience from the SARS epidemic in Hong Kong and Singapore. Intensive Care Medicine, 32(7), 1004-1013. (2차 인용)

더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회운동포커스와 의료연대 영상을 홈페이지 혹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포커스,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것은 간호인력과 중환자실>



의료연대본부, K-방역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한국 의료계의 진짜 현실 [inside 코로나19]



#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

## :故김재순노동시민대책위에 연대하며

지난 5월 22일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쥬조선우드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이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스물다섯살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고인의 죽음을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했고, 사업주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 죽었다며 고인을 닦았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를 필두로 노동·시민사회단체·유가족이 대책위를 꾸렸다. 이대로 자기과실사가 되게 둘 수 없었다. 하남산단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원인이 있음을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도 초동모임부터 참여해 뜻을 모았다.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5월부터 7월까지 대책위는 기자회견, 시민추모제 등을 하며 사건을 광주시민들에게 알렸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을 다수 발견했다. CCTV를 확보해 고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던 게 아니라, 늘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음을 밝혔다. 그 결과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쥬조선우드 대표 박상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대책위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전남대학생행진의 연대후기를 통해 학생동지들의 고민과 결의를 전한다. ●

<편집자 주>

## 연대의 힘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전남대 학생행진 | 이형호

남한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술한 산업재해에 노동자들은 풍전등화처럼 꺼져만 갔다. 조선우드 사업주 규탄 발언에 서처럼,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의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마주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투쟁은 고 김재순 노동자 한 분의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었다. 대책위는 이번 산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뿐 아니라, 연간 수천 건씩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싸웠다.

그동안 연대했던 김재순노동시민대책위원회의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광주·전남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 학생단체까지 결합해 이번 사안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산업재해를 어느 특정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직면한 일이기에, 지금의 노동에 문제 의식을 가진 주체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동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맞닿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3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단체들이 꾸린 대책위는 반노동적인 사회를 변화시키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구호로 요구안을 한데 묶었다. 기존의 노동법제도-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로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구제와 사업주 처벌 등의 허술한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렛대로 삼아, 노동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노동자사회운동은 단일한 사업장을 넘어 공단 전체와 지역의 수많은 일터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대책위 연대활동의 경험



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되었다. 또한 지역 차원의 연대는 지역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연대의 힘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자. 위험한 일터를 바꾸고, 누구나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



##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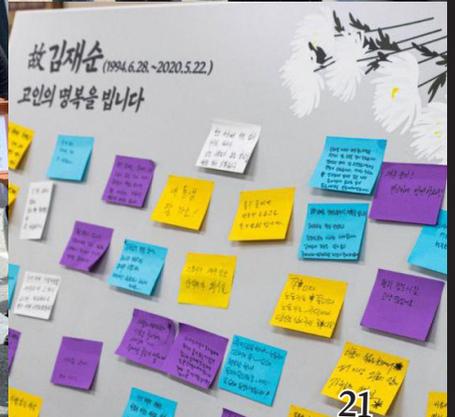
전남대 학생행진 | 오병호

이번 시민대책위처럼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들이 함께하는 건 처음이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분향소 지킴이, 출근 선전전 등에 함께하며 노동조합의 활동, 시민단체의 활동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등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려는 노동조합의 시도와 문제를 공론화하여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역할, 학내에 사건을 알려 연대를 청하는 학생의 역할 등 각 단체의 역할을 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이 왜 중요한지, 해당 역할이 잘 이루어지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배웠다. 이번 시민대책위를 통해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학회에서 내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



더욱 혼란해져만 가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연대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함께하며, 학내의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번 시민대책위와 같은 연대에 참여하고 싶다. 더 많은 사업,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 ●



# 민주노총의 제 역할을 찾지 못하면 노동운동 미래도 없다

노사정합의안 부결에 부쳐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집행부의 몫이다. 다만, 민주노조 운동은 노사정합의안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다시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집행부의 무능만큼이나, 합의안 반대를 주도했던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김명환 집행부가 물러난다고 민주노총의 곤란함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번 같은 혼란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나?

문제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순간부터 시작됐다. 무엇을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사정 협의가 시작된 탓이었다.

4월 중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화를 제안했을 당시, 민주노총의 요구는 사실 황당무계했다. 집행부는 21대 국회가 출범했음에도 해고금지를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으

로 당장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수개월 동안 지급하라고도 요구도 표현만 달리해서 반복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경제학적 합리성도 없었던 요구들이었다.

## 진보보다는 퇴보에 가까웠던 현장과의 합의안 반대 논리

집행부만큼이나 합의안 반대를 주도한 일부 세력에도 문제가 많았다. 소위 ‘현장파’로 불리는 의견그룹들은 합의안에 해고금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합의안이 1998년 정리해고제 같은 대량해고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였을 뿐이다. 이들의 합의안 반대 프레임에는 전통적인 기업별 고용안정 투쟁의 관성이 있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정세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현 정세에서 고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계기업의 문제이다. 코로나19는 항공업을 비롯해서 다수 업종에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입혔다. 일시적 해고금지가 아니라 영구적 해고금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보존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정세에서 현장과 의견그룹은 밀도 끝도 없이 투쟁하자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코로나19 정세에서 노사정 교섭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투쟁과 요구가 불가능한 사업장들, 즉 투쟁할 대상과 내용이 사라지는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회복할 수 없는 업종의 고용을 다른 경제 영역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현장과 의견그룹의 주장은 평시에, 그것도 지불 능력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한 투쟁을 코로나19 정세에 그대로 가져와 비판의 논거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대상은 코로나19 정세에서 외통수에 내몰린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었음에도 말이다.

당분간 총노동 투쟁전선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정세와 민주노총 역할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차선이다.

김명환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민주노총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터라 민주노총 요구가 무엇이어서 하는지조차 합의지반이 약하다. 그럼에도 민주노조 운동이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려면, 산별노조 중심으로 필요한 일들을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영세 사업장, 자영업자의 고용위기 최전선에 있는 총연맹 지역본부 역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

드는 방법에 관해 토론해야 한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확정적이다. 경제규모가 축소되는데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방법은 없다.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주동적 역할을 찾지 않으면 '자본 탓'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만큼 모든 것을 정부에게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자의 자구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역할에 관해 토론해야 한다. 이번 혼란에서도 드러난바, 민주노총 내에는 여전히 총연맹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합의가 없다. 위원장을 직선으로 뽑은들 총연맹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합의하지 못하면 리더십이 형성될 수 없다. 민주노총이 총자본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총자본에 대한 교섭이 필요하다면 그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초기업적 조직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금속, 공공운수 같은 산별노조의 역할과도 연관된 문제이다.

원포인트 노사정대화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혼란이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분골쇄신하자. ●



※ 전체입장문은 지난 7월24일 발간된 동명의 사회운동 포커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pssp.org/> 혹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R 코드사용법

안드로이드: 네이버 앱 > 왼쪽 하단 '렌즈' 로 스캔

아이폰: 카메라로 QR 코드스캔 > 상단 링크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로

2020

노동운동

2020년 9월 26일 (토)

14:00~18:30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포럼

**강연**

코로나19 이후, 어떤 세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강사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토론**

코로나 위기, 체제에 도전하는 노동운동의 과제  
발제 이소형(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문의전화 02-778-4001~2 | 이메일 pssp4001@gmail.com

## 신입회원 허지선 동지를 소개합니다.

8월 27일 늦은 시간, 소량(?)의 알콜과 함께 신입회원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입회원이자 신입활동가로서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허지선 동지를 소개한다.



이 잘 되어 있지 않다보니 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생활반경에 차이가 난다. 어디든 내 의지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사무처 일정에서 차가 없었다면 불편했을 상황들에 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좋다.

Q. 2년이나 서울에서 살았다. 인상 깊은 기억이 있다.

A. 산책이 즐거운 도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서울이 그랬다. 상도동 옥탑에서 살 때는 워낙 집이 열악하다보니 딱 잠만 잘 수 있는 시간대에 귀가하느라 잘 몰랐는데, 삼청동 방으로 이사한 후에는 일부러라도 동네 산책을 하러 나오곤 했다. 한번은 퇴근 하던 길이었는데, 집 앞에 있는 현대미술관 마당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미술관 야간개장일이라 전시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이 즐거우면서도,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서 이런 일상은 어렵겠구나 하고 막연히 느꼈던 기억이 난다. 사는 곳이 청와대 앞이다보니 동네에 경찰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끔 피켓이나 깃대를 들고 귀가하기라도 하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샀다. 몇 달 지나니 동네 주민인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쓰더라. 그것도 재밌었다.

Q.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있는지.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 같다. 서울은 워낙 사람이 많고 분주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타이트해지곤 한다. 광주는 서울보다는 일상이 여유롭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다.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 지역 선배들이 워낙 잘 챙겨 주시다 보니 적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못 느낀다. 아참, 최근에 차주가 되었는데 광주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Q. 광주생활 3개월 차다. 인상 깊은 기억이 있다.**

A. 사무실이 참 좋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일상에서 영감을 준다. 이사를 잘 마쳐서 안정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 기회로 지부 회원 분들과 어울릴 기회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광전지부 텐션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다. 따라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혼자 살다가 지금은 엄마, 아빠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

A. 마냥 좋지만은 않다. 혼자 살면서 만들었던 나름의 룰을 다시 부모님들과 맞추려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다. 사소하게는 빨래를 돌리는 방법이나 타이밍 같은 것에서부터...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점은 좋다.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아지들과 생활해서 좋은 점은, 강아지들이 참 사랑스럽다는 것이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강아지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데 정말 귀엽다.

**Q. 강아지 소개를 좀 해달라. 떨어져 살면 좀 아쉬울 거 같은데.**

A. 아. 서단비 사무처장님은 자꾸 양돌이 예쁘다는 이야기만 하시지만(웃음)... 콩이라는 강아지까지 우리 집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 양돌이는 9살이고, 정말, 누가 봐도 귀엽게 생겼다. 그런데 외모와 견성을 교환한 타입이다. 성격이 안 좋다. 콩이는 15개월 정도 된 강아지인데, 아직 어린 강아지의 면모가 남아있는 행동을 한다. 그 점이 참 귀엽다. 강아지들과 떨어져 살면 당장은 아쉬울 거 같다. 음... 한편으론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Q.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이 있다.**

A. 작가는 아니지만, 바흐의 음악을 좋아한다. 세심하게 계산된 규율에서 오는 안정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글의 경우 최근 김금희의 <사랑 밖의 모든 말들>이라는 에세이집을 재미있게 읽었다. 평소에 생각이 많은 편이라 흘러가는 생각들이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김금희는 그런 순간들을 잘 캐치한다. 정세랑의 <피프티피플>도 재미있게 읽었다. 수의대를 다니다가 외과의사가 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동기가 "더 중요한 걸 자르고 싶어서"다. 농담이고 그가 "어려운 구석에 놓여도 기능할 수 있는 조각이니까, 제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실제로도 해내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 활동가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았다.

Q. 좋아하는 영화감독이나 배우, 작품이 있다.

A. 영상매체를 즐겨보지 않아서 특별히 없다. 최근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는 있다. 언내 추릴 이라는 일본드라마다. “법의학은 미래를 위한 학문이다.” 라는 명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한번 있었던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케이스를 분석하고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도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코로나19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A. 어머니가 대형마트에서 자영업을 하는 중이다. 엄마가 최근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못살겠으니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을 보여주셨는데, 엄마도 그렇고 장사가 자기 일상에 전부였던 사람들의 일상이 다 무너지고 있겠구나 새삼 실감해서 마음이 아팠다. 활동가로서는 열악한 부문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자들이 숫자가 아니라 그 만

큼의 삶들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모임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하기도 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A.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역시 말하는 걸 좋아한다. 어색하게 쭈뼛거리다 마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광주에서의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 ●



# 2020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교육 경제·경영분석방법과 실습

... 활동가는 선의만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국면에서는 정말 무너지는 건지,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주한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제를 잘 모르면, 우리가 비록 좋은 의도더라도 실패할 수 있다. 투쟁방향과 선동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실패는 너무 뼈아프다.

오리엔테이션 中

- 연사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교재 각 차시별 교재 당일 배포
- 기간 총 11회, 격주로 진행(상세일정 개별 공지)
- 커리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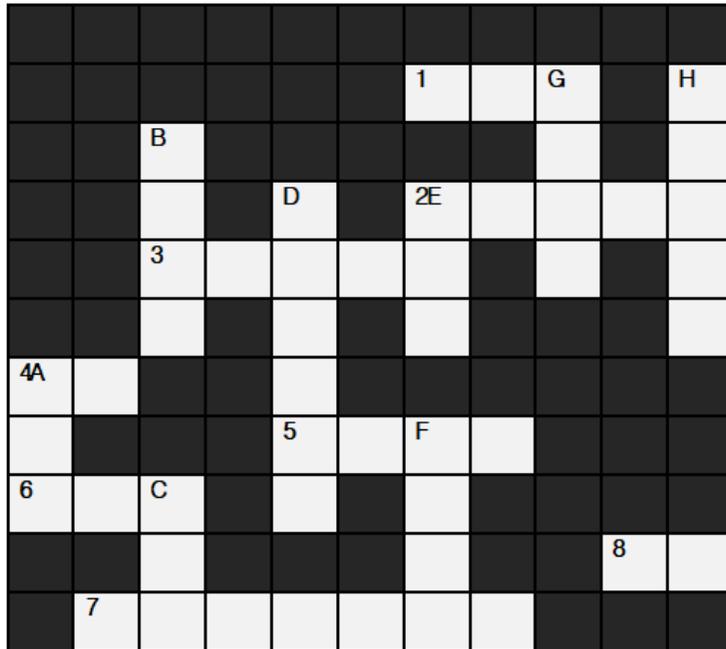
## 4장 노동시장

(1회)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시장 구조와 쟁점  
(2회) 저임금-임금격차 문제 접근방향  
(3회) 실습  
〈2018 KLI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김유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 접근방향〉 한지원

## 5장 마르크스 경제이론

(1회) 현대경제학비판 2강, 3강  
(2회) 4강, 5강  
(3회) 한국경제로 본 마르크스 자본, 1부 상품과 화폐  
(4회) 2부 이윤과 임금  
(5회) 3부 성장과 위기  
(6회) 4부 역사동역학, 5부 대안세계  
〈현대경제학 비판〉 윤소영, 〈한국경제로 본 마르크스 자본〉 (근간) 한지원

## 가로세로 낱말 퀴즈



### 가로문제

1. 무의 한 종류. 껍질이 붉다. 동명의 소설이 있다.
2. 휴업·휴직으로 일을 쉬는 사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늘어났다.
3. ○○○○병원은 광주의 공공병원으로 코로나감염자를 수용했다.
4. 명사, 복습이나 연습 따위를 위하여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내 주는 과제.
5. 기계와 기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는 학문. 공학의 한 분야이다.
6.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5월 송도로 164 3층 ○○○○로 이사했다.
7.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8. 고양잇과의 포유류. 수컷은 뒷머리와 앞가슴에 긴 갈기가 있다.

### 세로문제

- A. 기술이 능숙한 기술자나 노동자.
- B.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한 전화. 동전을 넣고 이용하는 것과 카드를 넣고 이용하는 것이 있다.
- C. 근속 연수의 길고 짧음과 연령의 많고 적음이 임금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임금 형태. ○○○제.
- D. ○○○○○○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 E. 기온, 습도, 기압 따위가 하루 동안에 변화하는 차이.
- F.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 의료원, 시·도립 병원 따위가 이에 속한다.
- G.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이 늘어났다. 대한항공은 전 직원 ○○○○을 검토하고 있다.
- H.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와 ○○○○○가 합작법을 설립해 진행한다.

낱말퀴즈의 빈칸을 모두 채워서  
사진을 찍은 뒤, 사진을 (010.3480.4733)로  
(9월 30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섯 분께 경품을 드립니다.